



1 세계드론대전  
2 드론 레이싱  
3 제31회 흥부제

## 30만여명의 방문객들로 ‘복직’

세계드론제전·문화재야행·국제도예캠프 등  
볼거리·즐길거리 가득... 시민들에게 ‘큰 호응’

남원시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을 비롯, 제31회 흥부제, 남원문화재야행, 남원국제도예캠프 등 5대 가을축제를 동시에 집약 개최 시내 전역을 축제의 장으로 만든 가운데 이 기간에 30만여명이 방문해 제대로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남원시의 이번 가을축제는 민선 8기 문화와 미래산업도시로 도약하는 남원을 표방하기 위한 남원시 대표 가을축제 진수성찬으로, 올해 처음으로 집약 개최되면서 이 기간 남원시 일대 곳곳이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국내 최초로 개최한 드론국제행사인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부터 남원국제도예캠프까지 남원시가 쏠아올린 축제의 성과를 정리했다.

**▲남원 세계드론제전**  
5대 축제의 흥행 선두 주자는 단연코 ‘드론’으로 하나되는 글로벌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이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다채롭게 펼쳐진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은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남원시 공동 주최, 항공안전기술원·대한민국항공회·대한드론축구협회·한국드론기업연합회가 공동 주관해 펼쳐진 남원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드론산업을 총망라한 행사로 4일간 많은 인파가 다녀갔다.

시는 첫 드론국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전에서 국내 최초로 유치한 FAI 남원 세계드론레이싱대회부터 드론축구, 드론스위 챌린지, K-UAM eVTOL 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드론 스포츠 대회와 드론산업 박람회 및 컨퍼런스 등을 다채롭게 선보였다.

그로 인해 남원을 비롯한 주변 인근 도시에서 많은 청소년들과 가족단위 관람객 등이 남원을 찾아 드론레이싱 스포츠 등에 열광한 바 이로써 2023 남원드론제전을 통해 레저 스포츠

여줬다는 세간의 평이다.

**▲제31회 흥부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펼쳐진 제31회 흥부제도 예향의 도시 남원의 가을 정취를 제대로 느끼게 해 준 청사초롱 불빛 아래 3일간 35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남원시 대표 축제로서의 명성을 확인시키며 성황리에 폐막했다.

국민 모두에게 익숙한 고전 흥부전을 MZ세대 시대의 시각에서 해석적으로 풍자한 ‘트롯뮤지컬 MZ흥부전’ 박력있는 태권도와 흥부전을 몰라보던 ‘태권 흥부전’ 전통 창구 형식의 오리자널 흥부전인 ‘흥부골 풍류’ 모래로 연출한 ‘샌드아트 흥부전’까지 다양한 장르로 해석한 4색(色)흥부전은 OSMU(one source multi use)대표 콘텐츠로서 발전 가능성을 입증했다. 특히 흥부전 스토리를 주제로 고전 속의 흥부·놀부가 돼 사전에 답아 보는 흥부 인생네트,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의 격언에 되새기는 흥부네 가운뎃길 또한 가족단위 방문객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난장이 아닌 푸드트럭 등이 큰 호응 속에 운영된 가운데 가격정찰제 도입에 따른 1만 원 대 인파의 착한 딱거리가 제공해 시민들과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고 ‘흥부자 콘서트’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음에도 단 한 명의 사고없이 치러져 흥부제 흥을 오롯이 만끽할 수 있는 안전한 축제현장이 됐다.

**▲문화재야행 & K-명승 달빛유취 야간관광**  
올해 4년째 열린 남원문화재야행사업과 또 남원시가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K-명승 달빛유취야간관광도 전통도시 남원의 또 다른 가능성을 선보이며 흥행에 성공했다.

실제로 유·무형 문화재 및 시설을 활용해 기존과 차별화된 야간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 지역의 핵심 관광자원 역할 및 중·장기적 지역재생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2023 남원문화재야행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광한루원과 월궁광장 일원에서 개최, 광한루원을 활용한 공연·체험·전시 등 문화향유 80(夜)를 테마로 △야경 △야로 △야사 △야화 △야설 △야식 △야시 △야숙으로 펼쳐졌다.

이에 따라 다수의 남원시민과 관광객이 참여, 많은 관람객들이 광한루원의 밤을 거닐며 남원만의 특별한 정취를 느꼈고 놀이와 체험, 공연 등을 통해 남원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야행은 시에서 추진한 광한루원의 밤을 빛낸 K-명승 달빛유취 야간관광과 함께 실시간 광한루원의 야간을 낭만적이고 환호한 볼거리가 제공됐다. 다채로운 색으로 물든 달빛야래 광한루원을 거니는 야간산책 나들이인 2023 남원 K-명승 광한루원 달빛유취도 성행했다.

이를 입증하듯, 2023 남원 K-명승 광한루원 달빛유취 만족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들은 △야간 광한루원 방문 만족도 점수 항목에 ‘매우 그렇다’ 70%, ‘그렇다’ 21% 등으로 답변했고 △이전 광한루원보다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항목에는 ‘그렇다’에 67% 재방문 의사엔 ‘매우 그렇다’ 72%, ‘그렇다’에 55%에 답변하기도 했다.

**▲제12회 남원국제도예캠프 호평 속 폐막**  
남원 도자 문화의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도자 문화를 국내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12회 남원국제도예캠프도 대규모 방문객의 호평 속

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춘향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펼쳐진 남원국제도예캠프는 ‘현대도예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국내외의 작가 138명이 참여, 전시회와 물레경진대회 등 8개의 다양한 도예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현대 도예와 남원도자문화의 매력을 선보이는 무대가 됐다.

이번 행사의 핵심인 기획초대전과 워크숍에는 영국, 미국, 중국, 호주, 싱가포르, 태국 등 19개국 48명의 해외작가가 대거 참여해 각국의 도예 문화와 국제적 예술성을 선보였으며 특히 해외작가 특유의 예술적 기법을 설명하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방문객에게 깊은 인상과 감동을 주었다.

한편, 도자 전공 학생과 일반작가 등 전국 도예인 60명이 참여한 물레경진대회에서는 예선과 본선의 치열한 경합 끝에 단국대학교 문성운 군이 대상을 수상하며 상금과 함께 부상으로 전기가마가 전달되어 눈길을 끌었으며 마블링 도예 체험에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 체험단이 출제어 참여하는 등 최고의 인기 품이를 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현장 방문객과 함께 500여 명이 이르는 캠프 참여자들이 2와 3일간 남원관광지 일원에서 숙박과 식사를 해결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도 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에서 치러진 대규모 축제 진수성찬에 많은 분들께서 호응해주신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며 “춘향제가 남원의 대표 봄 축제였다면, 이제 남원의 가을 축제는 매년 드론제전, 흥부제 등 축제한 상처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4 문화재야행  
5 국제도예캠프

축! 전주매일 창간

# 2024년도 제61회 천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상징물 공모

2023. 10. 11.(수) ~ 11. 10.(금) / 30일간

- 공모부분** | 4개 부문(대회포스터, 엠블럼, 마스코트, 슬로건)
- 공모자격** | 제한없음
- 공모주제** | 180만 도민의 화합과 열린체전의 상징적 의미 표현  
천북특별자치도와 순창군의 비전·발전미래상이 내포된 창의적 표현
- 시 상 금** | 총 7,200천원(부문별 당선작 및 가작)
- 공모방법** | 순창군 홈페이지(고시공고)참고

순창군